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와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신근

신속하게 진행된 수재민 돕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곤경에 처한 이웃 지체들 돌아보기

기도와 물질 · 온 몸으로 봉사한 한 주간, 23일은 수재민돕기 특별헌금



지난 8일까지 한 주간 내내 계속된 막대한 폭우는 서울 경기지역 서민들과 적지 않은 중현의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 피해를 입은 가정만 해도 무려 40여가구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지난 주일(9일) 긴급 임시당회를 통하여 수해 복구 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지난 12일 수재민 돕기를 위해 KBS 방송국에 5천만원의 기탁하였고 피해를 입은 중현의 지체 40여 가정을 위해서는 2천2백만원의 복구 비용을 전달하였다.

한편 대하부와 전교구 식구들 중에서 연인원 4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교회의 지원 아래 식사와 차량 등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온 몸으로 복구작업을 도왔다. 이 외에도 한 성도가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 장갑을 기

증해왔고, 교회는 휴지, 비누, 고추장, 된장, 라면, 설탕 등을 마련하여 사랑이 담긴 물결의 섬김으로 지체들을 위로했다. 한편 김성관 위임목사는 지난 주간 수해지역들을 여러 차례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했다.

중현의 성도들은 금번 수해와 더불어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의 신속한 섬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와 수재민들의 생활 환경을 신속하게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들의 상처난 마음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통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꾸준한 사랑의 섬김으로 동참해야 하겠다. 교회는 이를 위해 23일 주일예배시 수재민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념예배를 연 찬송은 8시 40분 복지한 가나홀에서 시작된다. 한편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을 모아 16일-30일에 갈릴리움 앞 보도에서 전시를 한다.

98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 유아세례식은 3시

오늘 찬양예배시에는 98년도 제3차 학습 세례식이 거행된다. 총인원 201명 중 세례자는 80명, 유아 세례자는 37명, 입교자는 31명, 개종자는 6명, 그리고 학습자는 47명이다. 이들 각자가 금번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중보가 있어야 하겠다.

제1회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중소 교회들에서 올려날 빛나는 영혼의 찬양을 위하여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회와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찬양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중소 교회 찬양대를 위한' 제1회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가 8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회와 기도원에서 거행된다. 금번 특별 행사는 지난 일년 동안 '예배로 드리는 신령한 찬양'을 강조해온 위임목사와 지원회 찬양위원회의 비전, 그리고 찬양감독제의 신설에 맞추어 기획된 일이다.

찬양위원회의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중소 교회의 찬양대의 활성화와 함께 도와 성기회는 차원에서 금번 강습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전국 교회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해 왔다.

신정 기준은 본 교단에 속한 출세교인 300명 미만의 교회나 찬양대원 30명 미만인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신청자들이 줄을 이어 강원도 철원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교인 70명에서부터 300명에 이르기까지, 신정 찬양대원으로로부터 50여년간 찬양대 반주를 해온 분에 이르기까지, 금번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의 정회원 200여명에 유망하는 숫자가 신청을 하였다.

찬양위원회는 금번 강습 및 수련회를 기획해서 중소 교회 찬양대들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있다.

농어촌전도대

금주에는 2개팀

금주에도 농어촌전도대 2개팀(4교구와 9교구)이 각각 8월 20일과 17일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와 경북 구미 등을 향해 출발한다. 여름 끝무렵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농어촌 외진 지역까지 힘차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겠다.

캐비넷, 그리고 정수기 등을 선택 기증하기도 했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의 선교 교두보로서 꾸준히 역할을 감당할 잠재력을 지닌 이들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역부에서는 교사와 차량봉사자, 심방봉사자 및 식당 봉사자 등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후반기장학생 기도회

21-22일

98년도 하반기 소석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및 기도회가 21일 저녁 금요집회와 더불어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금요집회 후 22일까지 중원교회원에서 기도회 및 특강, 조별모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장회는 후보자 전원이 21일(금) 저녁 7시 20분까지 본당 유숙 앞교사로 모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부

본당 지하 이멘홀에서 사무실 마련



작년 5월부터 사역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사역부 교사들은 금번 여름 단기 선교에 값진 도움을 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종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쓰던 중 지난달 12일에는 교회의 배려를 통해 아넬홀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면서 아넬홀의 한 모퉁이에 교사실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서 차량봉사로 섬기던 한 성도는 교사실을 위해 책걸상과 철판, 복사기와

중국2팀 귀국

지난 13일

8월 5일 출국했던 98년도 단기선교 마지막 주자인 중국2팀이 지난 13일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중국2팀의 모든 대원들이 선교적 열망을 더욱 잘 다들여가고, 성령의 부르심에 계속 민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영어예배부 10주년

23일 기념예배, 16-30일 사진전시회

다음주(23일)에는 영어예배부 10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진다. 영어예배부에서는 모든 영어예배부 참석자들 및 그동안 관심을 맺어왔던 성도들의 적극적인

정기감사

1. 감사 대상 기간: 1998. 1. 1-7. 31
2. 감사 대상 부서:
 - 가. 위원회 및 산하 각 부서와 기관
 - 나. 감사 실시 개진: 1998. 9월 중 매주일 9:00-16:00
4. 감사 장소: 선교관 404호 감사위원회실
5. 준비 서류:
 - 1) 당회기간의 시산표(부서장 확인)
 - 2)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원장, 보조장)와 경비서류 및 예금통장
 -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6. 감사 방법: 감사위원회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징계

(사 27:7-11)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려고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맏게 때려서라도
영원이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의 성경적 의미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징계는 세상에 내리는 징계와 아주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선민을 징계하시는 성경이 어떠한가

(1)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나”(7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만 실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도 잘못할 때에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민을 치시고 앗수르나 바벨론을 치신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앗수르를 무자비하게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비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에 선민의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어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맞는 매와 다른 것입니다.

(2) 도를 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라 쯔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시니라”(8절)
“적당하게 견책하시라”는 인내와 관용으로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조소심럽게 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경한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꼭 불어버리시지 않고 재질을 하여 이끌어 내십니다.

(3) 불신자보다 선민을 더 자주 징계하십니다
악마의 졸도들인 불신자의 잘못을 내버려 두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께 자주 자주 때리십니다.

(4) 징계하는 기한이 짧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10년, 20년 성도를 때리지 않습니다. 잠깐 때리고는 사배이 주십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즉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곧

제거해 주십니다.

2. 하나님이 선민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 선민을 징계하십니다
“...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수진 횃돌 같게 하며 ...”(9절)
사람은 미련하여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지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미련을 부리면 때로는 따끔하게 때려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만 해 주시면 게가 잘 나서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려고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우상들을 부수기 위하여 만들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던 죄를 깨달을 것입니다.

(2) 죄악의 습관을 버리게 하려고 선민을 징계하십니다
“...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세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9절)
사람이 매를 맞으면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우상을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는 중지될 것입니다.

(3) 큰 멸망을 면하게 하려고 선민을 징계하십니다
“아픔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애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함이니 ...”(9절)
하나님은 선민을 맏게 때려서라도 영원이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서면 지옥의 멸망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림으로 비로소 속함을 얻을 것입니다.

(4) 보다 실력이 있는 겸손한 선민을 만들어 주려고 선민을 징계하십니다
조금 은혜받고 탈선하여 형편없이 된 자를 한 번 맏게 때리시면 “기도를 더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보아야 되겠다” 하고 겸손해지면서 실력있는 일꾼으로 자라납니다.

3.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11절)
한 마디로 선민이 징계를 받는 원인은 ‘지각이 없으므로’, 즉 몰라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을 몰라서 징계를 받습니다
비록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교사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르면 매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입는 옷,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매를 맞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매를 맞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 왕의 세력을 격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민족은 흥해라는 환난 앞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하지 못하다가 매를 맞게 됩니다. 임의로는 하나님이 심판주시라고 하면서 사람만 보면 벌벌 떨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는 백성은 처치해 버려야 되겠다”라며 심판하십니다.

(2) 사람을 몰라서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첫째, 사람의 약함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풀처럼 시들고 그 영광은 풀처럼 떨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재산과 권세는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맏니다. 이것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둘째,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님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는 사람을 믿고 무서워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그

러나 열을 가는 뜻이 없고, 10년 가는 세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몰라서 믿고 아첨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3) 우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우상은 한 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매맞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부탁해 놓고는 당장 안된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성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잠깐 것이 많았어도 오늘 잘못하면 매를 드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를 맞을 때에 내게 잘못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회개를 빨리 하면 징계는 속히 면하고 회개를 천천히 하면 그만큼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앗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헤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의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매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려야 죄악과 타협하면 벌을 받습니다. 다섯째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에 미워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기에 매를 맞았는지를 생각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매를 맞으며 감사하는 자는 앞길이 열립니다. ■

오셔야 할 메시아

(사도행전 2:29-36)



김 선관 목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분께 영광 돌림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눅 24:49) 성령님께서 강림하사 제자들 위에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은 그 모여 있던 집을 떠나 성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 모두가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참으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웃으며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귀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구약적 배경에 비추어 설명합니다(14-21절). 그는 먼저 그 시기가 제 삼기 곧 오전 아홉시이므로 자신과 열한 사도는 술에 취한 상태일 리가 없다고 변증합니다. 유대교의 명절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오전 열사나 정오까지 금식과 금주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하여 당황해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신적지 요령(욥 2:28-32)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상기시킵니다(16-21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세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완벽한 성경적인 설명을 끝낸 후, 이제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며 진리를 확실히 밝히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세히 설명

을 합니다(22-35절). 이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으로써 바로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두 기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메시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와 영적인 기대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적인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였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점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른 기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창조 오실 메시아를 어떤 기대 속에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정구 교회를 받지 못한 목사이셨습니다. 그 분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22절).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 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박았습니까. 그 분은 중오의 대상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느냐"(23절). 그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악한 세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패배는 가장 중요한 세번째 요소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깨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24절).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시편 16편 8-11절을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메시야에 대하여 기록했고(31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32절).

따라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이 청빙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36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한 베드로의 명확한 선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의 설교는 그저 먼 벌치에서 방관하며 들을 것이 아니라 속히 청진을 차리고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야요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죽음에서 부활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선 선물이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사가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변화할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세상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대는 영생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과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건강과 성공과 풍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그 분과 동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원하신다면 환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개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자기 중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중심을 삼기 위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명예를 얻기 위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를 위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진실로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에 밝은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기쁨의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분께 영광 돌림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아멘. ■

인도팀 선교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 인도

손 소영(인도 단기선교팀, 대학부)



▲ 델리지역의 슬럼가에서 있었던 집회 모습.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과 2,000km 이상 이어지는 힌두산 대평야가 펼쳐진 나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카스트 제도로는 엄격한 신분 질서 아래 현재의 삶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머니의 강인 성스러운 갠지스강에 몸을 담그면 죄사함을 받고 죽어 재를 갠지스강물에 띄우면 윤회에서 해탈을 얻는다는 믿음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굳건히 자리잡힌 나라 인도를 7월 23일, 8월 3일까지 12명의 팀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

이번 인도 팀은 12명이 함께 인도에 갔지만 인도에 도착한 후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한 팀은 편잡지방을 중심으로, 한 팀은 바라나시와 델리를 중심으로, 한 팀은 쟁가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다. 모두들 성령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뎀은 복음이 낫힌 인도인들에게 심어지길 소망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졌다.

힌두교 최대의 성지인 바라나시는 갠지스강 줄류의 서쪽을 따라서 형성된 인구 200만명 정도의 대도시로 300여개의 힌두교 사원이 있다. 힌두교의 인도인들은 누구나 평생을 한 번은 갠지스강물에 세욕에서 두려워진 몸을 담그고 그 생을 인생 교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강에 몸을 씻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을 가져 다준다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강변으로 모인다.

또한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화장터에는 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 사신들이 늘어선 길에 돈이 없어 미처 화장터에서 배우지 못한 사신들을 그냥 강 위에 띄워 버리고도 한다. 갠지스 강물에 담갔다 건진 사신을 산 달이라고 부르는대, 이것을 강가다미 위에 올려놓고 화장한 후에 사신의 재를 강물에 띄우게 해야만 축복을 받아 다음 번의 윤회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 팀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바라나시에 머무르며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 나는 데베 바이블

펠로우십(Shechem Bible Fellowship)이라는 바라나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모임을 소개하고 싶다. 그곳에는 백만인 목사님을 주축으로 30여명 정도의 인도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니 인도 땅 가운데 온밀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예배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 기기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지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병장수술을 한 새교라 자매, 친구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으며 캠퍼스 사역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재란 판매업을 하고 있는 형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름이 높아져길 기도하고 있는 신교에 헌신된 자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교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자스민 자매, 더욱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기술자 길벨리우스, 자유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온케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 주시길 원한다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샤토폴미, 아파고 딸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르만, 기와 다리가 아픈 비류람 등 이곳



▲ 웨컴 바이블 펠로우십에서 현지 크리스천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들과 함께 하며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아침에 맨 갠지스강의 아득고 담담한 모습을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석가가 제1차 처음 설법한 장소인 부다사원에서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도방전도를 하며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도를 하며 느낀 것은 인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갈급함들이 뿌리 깊게 내재해 있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의 삶에 대해 설명을 하면 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며 더욱 많이 얘기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기가 어려웠고, 영

어를 못하는 인도인에게 힌두어로 전도하는 데에 있어 막힘이 있었다. 우리의 준비 부족, 우리의 혼란되지 못 함으로 인해 귀한 영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때는 너무나 슬프고 좌절, 하지만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시는 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에 맞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우리팀은 노방전도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곳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동그런 원을 그려 두었는데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떠보니 60여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원을 그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순간 우리는 이 영혼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과 목사님의 설교와 팀원들이 준비한 힌디 찬양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가질 수 있었고, 집회 마지막에 함께 부흥을 찬양하며 그 땅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렇게 나는 바라나시에서 짧은 사역을 마치고 델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라나시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풍경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 특히 바라나시의 영혼을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인도인들이 백목적으로 답답되어 내려오는 이상들을 신봉하는 모습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읽는 인도인들의 열린 마음을 느리게 되었고, 주변에서 많은 편박과 불이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몸소 실천하는 인도의 크리스천을 만나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인도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인들을 전도하며 느낀 것은 선교는 현실이며, 삶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인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꺾게 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전도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부분들을 '복음'으로 대항하고 그 약점을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골짜기의 허실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짧은 단기 선교라도 언어훈련을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영어와 힌두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도하는 데에 있어 복음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무력해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인도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인도인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단기 선교였던 장기적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보다 앞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평생의 전도사 후원 결정

허요셉, 김신실 선교사

지난 8월 5일 당회는 선교위원회에서 정원한 허요셉, 김신실 평생전도선교사 후원의 건을 받기로 동의하고 매월 후원기로 결정하였다. 허요셉 선교사는 지난 1996년 청년부에서 단기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알제리(아프리카)에서 두번째 큰 도시로 인구 600만의 대도시에서 회교권 선교를 감당해왔다. 성도들은 허요셉, 김신실 선교사가 매월 성령 충만함으로 누려있는 삶을 살도록, 신실한 헌신인 동역자와 제자 양육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언어(아랍어와 영어)의 신속한 습득 및 문화 적응을 위하여, 그리고 회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로 지원할 수 있기를 하였다.



▲ 불교성지인 시르나트에서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대원들.

매슬린 어를성경교육을 다와서

하나님이 앞서서 사랑하신다

— 둘째개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 —

이 회 상
(3학년)



시 작부터 기대를 많이 한 사역이었다. 매주 보는 아이들이 데리고 가서 하는 사역이기에 긴장감이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법도 하지만 이번의 사역은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많은 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년 넘게 이어오던 둘째개의 해심원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는 사역이 일시 중단된 6개월여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다. 절반 이상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후 가진 해심원 사역은 초기에 많은 지체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사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매주 힘들게 기도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들도 특유의 반항적인 고집 태도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3박 4일은 사역의 승부를 결판 내릴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역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게 하신 많은 선배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군 문제, 직장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개 사역을 위해 좋은 일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들의 선택을 주장하시지 않은 준비된 선배들이 있었다. 객체측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선배들은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두터운 인력층을 감히 자랑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감사하면서 또한 가슴이 아픈 점이 있었다. 대개의 사역들을 보면 내 동기들이 리더로서 사역의 중심에서 이끌어갔다. 하지만 나는 이 사역의 준비 과정에서 굳이 말하자면 4번째 정도의 자리에 있었다. 위뿐만 아니라 아래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중한 지체들을 모아 주셨다. 사람들의 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모아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 나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의 무너졌던 아니 완전치 사라도서 사역이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지 한 학기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그 순간 또한 마음이 아팠다. 해심원 아이들은 사랑하기 참으로 힘든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절박하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사역의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다. 누구도 사역의 분위기를 이끌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있다. 기도자 부족하고 여겨지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서 혼자라도 사역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부분부분 준비가 부족하면 자발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무리 없이 화기애애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사역. 그런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아이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다. 앞에서 세세하게 대하게 된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답답한 심정을 자주 매가 많았다. 우리의 노력에 힘드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다.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조금 마음을 열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해심원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사역을 마친 지 1주일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다한 지체개 해심원 아이들이 자주 매가 많고 그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일 것이다.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고 보여지지 않는 결과에 힘이 날 수 없는 사역이던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모든 마음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다른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주 바보같이 해심원에 올라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

사실 아이들이 사역을 갔다는 후에 조금 우리들의 말을 그대로 자기 진보라는 잘 듣기는 한다. 하지만 항상 시간이 흐르면 그 모습은 변했기에 크기의 미를 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한 우리들의 모습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성경 통독

여호수아서는 재미있다 II

정진진(3학년)

여 호수아는 자신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자질이 "멋져" 보여도 자신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합시다. "여호수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도 들리지는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용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일한 것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모든 불행한 일도 너희에게 일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수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멸하지나니 여호수아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 그에게 절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지나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23:14-16).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첫과 볼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닐까. 그 땅에서 죽지 못할 수 있음을, 땅의 성취로 언약이 완료되지 않음을.

우리는 결과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안 이뤄지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고, 혹은 들어 주시지 않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러한 결과를 잘 많이 봅니다. 하지만 고기를 잘라고 했을 때 매우라기가 왔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실패일 것입니다. 코에 넘치도록 주시는 넉넉한 축복 같았지만 오히려 코에 넘치도록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즐거움, '와' 신난다! 신난다! 하다가 맞이하는 결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감만이 중요하지 않았 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갔지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확인합니다.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심길 자를 오늘 날 배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시간이 내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물음에 답해 보세요. 21, 22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중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중언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23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런데 지금의 삶은 23 절의 말씀대로 살아지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로? 경제? 또 똑같은 답. 내가 잘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데, 왜 여호수아가 말하는 사람이 없나요? 왜 다들 조용 조용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도 않나요? 당신은 중언입니까?

여호수아의 많은 내용은 전투입니다. 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호풍이 있는

것을 다 죽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심지어 말에도 전쟁 후에 온다고 하지 않느냐? 사냥의 종교가 왜 그렇게 다 죽이는 예기인가? 그때는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야 한다지만 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23:13에서, 분별 악에 대해 철저히 멸절하라고 했지만 훗날 야기인이 그 죽음을 취하여 두었기에 결국 울무와 덮과 채찍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무수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전투를 벌이는 하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과 싸우야 합니다. 남겨둔 울무와 덮과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칠 겁니다. 아름다운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인음이 있어도 멸절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나요? 하.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에 나와 있지도. 오직 하나님 함께! 혼자서는 힘들어서 죽어도 못합니다. "임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렘 33:2).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은 항상입니다. 기초가 없는 일이고 금방 지치고 쓰러집니다. 행하고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서 과연 '이 같이' 일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에 절름 보며 마칩니다. "너희가 부끄로웠던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당신은 중언? 당신의 마음은? 무엇과 싸우나요? 어떻게?

나의 주님과 하나님

봉헌전도서 목회

한없는 은혜, 풍성한 열매

17교구 봉헌전도대원 23명은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김동석 목사를 모시고 충북 제천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장로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축조 전도, 마을 봉사, 식사 준비 및 의료봉사팀으로 구분하여 4개 마을(구룡, 사곡, 덕진, 진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세신자 어른 30여명, 어린이 15명, 의료진료 146명)를 거두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드림에 후한데 주신 교구의 모든 식구들을 기도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몇몇 대원들의 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감탄한 사역
축조전도팀 정은숙 권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필요한 곳에 봉사하고자 비록 부족하여도 순종하고 출발하니 오래간만에 고향의 공기와 쾌한 날씨를 맡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도착한 첫날 오후부터 귀한 사명주심에 감사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 축조전도를 했다. 한 생명이 너무 귀하기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부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다. 육신은 피곤하였지만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대원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전도를 하였다. 맘을 씻어 주는 자연의 선물인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서 축조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채운 금성면에 맺어 주시리라 믿는다.

'아멘'으로 화답한 예비된 영혼들
마을봉사회 김민준 집사

오늘 아침은 유난히도 저는 듯한 무더기 바람을 받게 한다. 멀리서 보기에야 산등재 아래 띄엄띄엄 45개 부락이 있는데 너무나 한적함을 느꼈다. 그러나 여장을 풀고 전도와 방문을 시작했는데 한 동네마다 보이지 않던 집은 왜 그리 많은지 놀라 50여 가구, 5



개 부락에 200여 가구는 넘어 보였다. 각 가정은 일인이 빠진 집이 많았고 어린이와 노인들이 집을 보고 있었다. 집에 있는 어린이는 여름성경학교에 나오도록 금성교회 장년집 목사님이 손수 교회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노인들이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셔 오고 이렇게 3일 동안 4개 부락을 섬겼다. 수요일(7월 22일) 저녁에는 온 동네 잔치를 위해 준비를 했다. 1부 예배와 2부 특별선교를 마치고 마당에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준비된 음식이 할터니, 할아버지보다 빈틈없이 꼭 들어 찹고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맛있게 배를리 잡수시는 모습들이 보기가 너무 좋았

다. 그들 모두 예배시간에 기도와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하는 생명책에 기록하여 교회에 들어올 것을 확신한다. 우리 대원들과 어린이들을 합쳐 100여명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천국잔치였다. 전도대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이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낙원이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성경학도팀 김수진

내가 열심히 잘해서 무언가 보여줘야

지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은 날이 부풀어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역일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초조해지고 격정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잘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격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사역에 임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딱딱하고 두꺼운 마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내 교회를 피하고 복음을 피하며 살았던 마을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영혼들을 하나님도 잃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안도감이 들었다. 그동안 내 마음을 갇두고 있던 영혼들을 내 한 안타까움과 열리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 보여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사 내가 아무 일을 못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무언가 잘해서 혼자만의 만족감에 젖어 보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들을 위해 전진으로 기도하는 것과 때때로 주저하는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또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이다.

광복절과 기독교 신앙

정해성

(목사, 9교구 지도)

이번 광복절은 해방 이후 어느 해보다 느낌이 다릅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체제를 맞이하여 온 나라가 큰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주 전에는 기습성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숙연해진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광복절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비교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34년간을 지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었고 이제 말기에는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동여정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병으로 또는 징용으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신사참배라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핍박과 곤고에 못이겨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나 돌이켜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억력하여 출애굽 14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머잡고 땅에서 밭갈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머잡고 밭을 만만 우리에게 경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해방 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

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한국 경제도 급성장을 이루어 한국의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교단들은 거듭 분열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서구 문명의 유입과 함께 전통 문화가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세력들과 졸부들이 생기면서 사치성 과소비를 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음란 퇴폐문화가 사회저변을 휩쓸고 금기라는 사회의 기초질서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사회현상에서 거리의 구별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뿌리운 사건이 되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꼭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는 교회들은 안타까워만 할 뿐 민족적인 회개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안 교회의 성장률이 무너지는 것이 싫으니, 정체를 거쳐 마인스트 성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배 시간 중에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일에는 눈에 띄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열기가 줄어들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보기도 전에 안으로부터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금기가 IMF라는 매를 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IMF의 고통스러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정신차리지 못한대 싶으니 이번 여름에는 폭우로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성장과 교회부흥을 주신 이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있는 손길이 있었습니.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는 분명히 세계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5월말이나 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

다. 이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우주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 영적인 회개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황금만능주의와 물질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정이 변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모두 부패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죄인이 거둔다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타락한 행할 능력은 아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죄의 노예로 세속적인 쾌락의 노예로부터 영적인 행방이 있어야 하

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을"이라 (롬 8:2).



지혜를 속삭임

15교구

우리의 갈 길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수해마져 겹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도자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건만 일로는 "론일이다", 달라져야 산다" 외치면서도 "나"의 것이고 책임은 "너"의 것이기에 모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며 그저 일이 터진 후에 명분을 위한 변명으로 전이시키는 모습이 심히 걱정된다. 세상이 그렇다. 처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진리를 상대와 시기고 화해시키고 있는 것에 무감각해진 '영적 불감증'이 중증을 넘어서는 것이 더욱 크나큰 문제이다.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육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게 하소서." (순석환 통신원)

영아부

신생부, 그레도 감사해요!

이번 폭우로 영아부에 속해 있는 몇가정이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척 아프다. 빗물과 하수물에 모두 젖어 뭍게 된 물건이 쓸 수 있는 물건보다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부, 그레도 감사해요'라는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순종하며 감사하는 모습에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송혜경 통신원)

유지부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드려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고 하신 다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

으며 용기를 얻는 말씀 시간이었습다. 폭우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어린이들이 늘 체험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일생을 책임지시길 기도합니다. 유치부 찬양대 찬양 캠프는 수해와 일기 사정 등으로 인해 거울 학기로 연기합니다. (조원희 통신원)

고등부

몽골 단기선교 사역 보고

고등부 회원 김세령, 이미희가 무사히 귀국했다. 이들은 귀국하자마자 3일에 시작된 수련회에 합류하여 단기선교 사역을 보고하며 수련회 참가자들과 은혜를 나눴다. (최원희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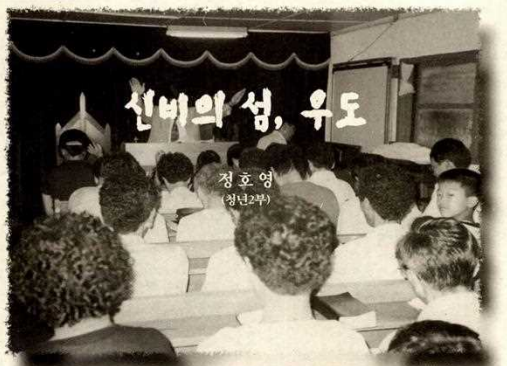
충원복자관

우리두리 여름캠프

8월 4-6일 용인 황새울관광농원에서 우리두리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는 정신지체인과 일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일대일로 짝을 지어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캠프는 자연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낙도 단기 사역



정호영
(전남2부)

두려움과 함께 설레임으로 기다렸던 그 섬과의 만남, 경성남도 통영군 육지면 연하리 우도,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우리 일행(형제 5, 자매 5)은 3월 4일간의 단기 사역을 위해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였다. 너무 청정했기에 간단히 한 발을 내디뎠더니 그 아름다운 섬의 깨끗함을 비추듯 모든 부산하게 침입자들을 맞이 주었고 정제 그물러진 마을 주민 한 분이 말씀은 없었지만 우리를 도와 주면서 반기시는 듯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분이 인지한 우도 이상인이었다.

우리는 일단 마을회관을 속으로 정하고 짐을 내려놓고 탐방(정성수 형제:정

년2부선교부장)의 지휘 아래 작은 선물을 들고 집집마다 인사를 드리며 전도를 시작하였다.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곳이었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름 휴가도 갈 수 없고 또 모처럼 휴가기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충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맑고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우도에는 31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인구는 50명 정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5명이고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우도에 교회가 있었지만 그동안 교역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김지선(초동부 5-3반)

이은지(초동부 6-2반)

나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사랑을 나누 주는 어린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이라 하였다. 나쁜 믿음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행함은 믿음을 주었다.

많은 순서 중 천로역정에서의 '아름다운 돌레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울었다. 나는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1박 2일간의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점심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땅을 놀리며 하나님 집에 달려 왔다. 사랑을 나누 주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의 말씀이 계셨다. 나에게와 닮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까지 나는 내 친구,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과로부터 사랑받기를 좋아했다.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웠다.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둘째날을 맞이했다. 모든 순서 순서가 재미있었다. 성경퀴즈 시간에 나도 당당히 답을 맞추어 아모스님이 우승하는 데 한몫을 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속으로 느꼈다. 낙도 주민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수할 때 되도록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하겠다.



가 안개였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쯤 우도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실 목사님(한영관 목사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함께 사역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들의 출발을 더욱 힘있게 해주셨다.

우리들은 축초전도를 한 후에 자매들은 의료팀과 이. 미용팀으로 나뉘어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의료팀은 처음에는 치과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려 하였으나 그곳의 노인들이 거의 의지를 하고 계시는 방향을 틀러서 다기관접촉이나 허리통증에 있는 노인분들을 물리치료와 약을 드리고 주춤해 나누어 드렸다. 이. 미용팀은 카트를 중심으로 봉사하였는데 어떤 분야에도 준비가 부족했던 나는 자신을 보면서 그곳의 필요를 고려치 못하는 사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 가까이 하나님께의 도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일방적인 요구처럼 들리는 전도, 금과 은은 내게 걸리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는 겸손함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하여 놓여온 단기 사역에 참여해야겠다는 반성을 깊이 하게 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형제들이 노인들을 못났던 험한 일을 도와 드리며 전도하기 위해 막달이 나왔다. 비료를 옮겨드리고 농약을 뿌려 드리고 풀을 베고 해안정수를 하였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저녁 7시 30분경부터는 우도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까지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담한 섬, 우도는 경창도 없었고, 특별한 법도 없었지만 그곳 이장님께서 봉사하는 자세로 여러 번으로 주민들을 불러주고 개인 모범적으로 따뜻한 마음이었다. 아끼고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았으나 함께 예배 드릴 때 빈 자리는 별로 없었으며 예배 전 우리들이 주민들을 모시러 가도 우리들을 섬김하게 대해서는 분노 거의 없었었다. 토요일 저녁 마지막 예배 때는 청년2부 전령총 목사님과 회장 황윤성 형제, 부회장 조대현 형제도 합류하여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우도의 다양한 할머니들께서 우리들의 보살핌을 필요해 하였고 우리들은 푸르고 맑은 우도가 그곳에 들어오는 누구도 그치 보내주지 않는 신비의 섬이 되길 바랐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나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섬. 하얀 파도와 함께 우리들을 배웅해 준 작은 섬 우도! 믿음의 섬이 되어서 열매 맺게 열매 맺는 정갈 보배 같은 섬이 되기를 맺길에 흔들리며 우리들은 기도드렸다.

7월 23일 목요일 주민들과의 아쉬운 이별을 뒤로 해와 할 때 우리들은 푸르고 맑은 우도가 그곳에 들어오는 누구도 그치 보내주지 않는 신비의 섬이 되길 바랐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나 갈 수 없는 아름다운 섬. 하얀 파도와 함께 우리들을 배웅해 준 작은 섬 우도! 믿음의 섬이 되어서 열매 맺게 열매 맺는 정갈 보배 같은 섬이 되기를 맺길에 흔들리며 우리들은 기도드렸다.

교 회 소 식

● 알 린

-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 오늘 찬양예에서, 본당 유아세례식은 오늘 15:00, 갈릴리움
- 제8회 안수집사서 회례식 /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총회기도원에서 있습니다.
 - 주자: 김성관, 김주승, 이슬수 목사
- 에버다부 수회교식 개강 / 오늘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기간: 8.16-12.6(16주)
 - 과정(주일, 수요일)
 - 수양반: 초급, 중급, 통역(15:00-16:30)
 - 수양반: 초급(13:00-14:30)
 - 목양반: 초급(19:00-20:30)
 - 신장 및 문화: 에버다부 교사실
-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 9월 5일(토) 19:00, 베다니홀
- 시절각시 초등학교 교육자료 수집 / 시절각시에서는 가정에 비치 않는 책과 성서에 관한 비디오 일일 등을 수집합니다.
 - 수집처: 2002년(초)집 10000-16000
- 크로마프크 - 만도안대 모임 / 초보자부터 누구나 환영합니다. · 기간: 13일 - 10월말
 - 문의: 크로마프크-김주승 집사(548-6916), 만도안대-이연순 집사(3463-0434)
 - 연휴: 예수교 09:00-10:30, 나사렛
- 알 린
- 장로 회교사목비디오 / 18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안수집사서 회례식비디오 / 17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찬양위원회 월례회 / 23일(수요일)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국제회의실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사무국
- 제1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준비비디오 / 오늘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대상: 찬양회원, 수련회 일원, 강사진)
- 2교구 총회기도 / 25일(토) 18:30, 만나홀 (대상: 2교구 성도 전체)
- 주일 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9. 칠일전도회 목회기도회 / 20일(목) 새벽기도 후, 십일전도회실
- 교육훈련원 월례회 / 21일(금) 18:00, 교육관
- 안수집사 수련회 준비비디오 / 20일(목) 15:30, 교육관 212호
-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19일(수) 1부예배 후, 사랑방
- 남녀전도회
1. 바울 2 / 오늘 구교모임 후, 아멘홀
2. 바울 4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2호
3. 바울 5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4. 바울 10 / 21일(금) 18:00, 갈릴리움
5. 바울 13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0호
6. 바울 16 / 오늘 구교모임 후, 임마누엘
7. 베드로 8 / 21일(금) 금요집회 후, 총회기도원
8. 베드로 9 / 20일(목) 19:30, 성령번역(목동)
9. 베드로 12 / 오늘 15:00, 교육관 409호
10. 베드로 16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1. 요한 5 / 22일(토) 19:00, 타이부실
12. 요한 7 / 22일(토) 18:00, 후파성 집사대
13. 요한 14 / 23일(주일) 10:00, 교육관 206호
14. 요한 17 / 22일(토) 16:00, 이레학 집사대(0336-635-957)
15. 한 나 3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16. 한 나13 / 오늘 구교모임 후, 사랑방
17. 예수대 1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18. 예수대 2 / 오늘 구교모임 후, 아멘홀
19. 예수대 3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0. 예수대 6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1. 예수대 7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5호
22. 예수대 9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23. 예수대10 / 오늘 구교모임 후, 본당 2층
24. 예수대11 / 오늘 구교모임 후, 매추라기홀
25. 예수대12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26. 예수대13 / 오늘 구교모임 후, 타이부실
27. 예수대15 / 오늘 구교모임 후, 베다니홀
28. 예수대16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29. 예수대17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0. 루디아 2 / 17일(월) 11:00, 갈릴리움
31. 루디아 5 / 19일(수) 1부예배 후, 새가족부 교사실
32. 루디아 6 / 19일(수) 11:00, 뮌비홀
33. 루디아 7 / 18일(화) 11:00, 시라발가든

34. 루디아12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04호
35. 루디아13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1호
36. 루디아18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7. 루디아17 / 18일(화) 11:00, 타이부실
38. 미리아 5 / 25일(토) 10:30, 갈릴리움
39. 미리아 5 / 18일(토) 10:30, 신촌가정부실
40. 미리아13 / 오늘 1부예배 후, 갈릴리움
- 결 혼
1. 김현준(공화초) 안수집사, 김삼자 집사의 아들, 제6교구(구) 오병화당오묘로써 새, 청정목 성도의 딸, 제19교구(구) 12:30 갈릴리움
2. 박인교(박대목) 성도의 아들과, 이미리(영성신) 권사의 딸, 제5교구 / 22일(토) 12:30 교향교회
3. 김태성(김천제) 새, 홍순복 성도의 아들과(한정선) 안수집사 권사의 딸, 제4교구 / 22일(토) 13:30 회령병원프라자 5층 대극장

■ 영상(비디오) · 사무 직원 모집

- 총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품된 회교회를 섬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세례 받은 PC사용 가능한 남자로서
 - 해외 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직
 - ① 영상직 1명(26세 미만)
 - 전야, 전기 계통의 이수자
 - 촬영 및 편집의 경험자
 - ② 사무직 1명(30세 미만)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자기소개서
 - ④ 타고난인 명회장 추천서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교관 402번)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강인한 원로목사와 강성관 위임목사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로 하소서
- ② 주님, 세계, 유해해, 각종 및 인교를 원하시는 정도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③ 주님의 가정이 매우 그랜드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④ 그 베네딕토를 받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온전히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 이들이 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 ⑥ 새가족비디오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어서게 하소서
- ⑦ 나이가 어려움 이데에 합당고 고상스러워 발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의지하게 순종하게 하시며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간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⑧ 자물 채인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원로목사
 - 김정인
- 위임목사
 - 김성관
- 부목사
 - 이홍성 김희수 이종민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최준환 김재철 이수주 장갑신 장원민 조준환 조주승 김동하 차병준 김태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슬하 장영성
- 협동목사
 - 윤영학 박영호 노봉년
- 선교사
 - 이준교 안석원 김영대
- 감도사
 -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 이두란
- 여전도사
 - 최순복 장영희 현진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재희 오민희 송향자 신동하 오순숙 오정숙 오민희 김옥순 한영순 박종화 박희자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 박영자
- 교도전도사
 - 박민기 열원일 한일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식 김광중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우환
- 선교전도사
 - 장은희 박대양
- 원로전도사
 - 유병태 김영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민 하효성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40	김민정	1	청년2부		1349	김수경	19	청년1부		1358	윤영일	5	청년2부	
1341	서준원	1	청년2부		1350	임은수	19	청년1부		1359	오순옥	5	청년2부	
1342	박광호	6	청년2부	최영옥(6)	1351	하진	19	청년1부	김성관(3)	1360	김진애	19	청년1부	
1343	최영란	6	청년2부	최영옥(6)	1352	김효진	19	청년1부		1361	김종길	19	청년1부	
1344	배광수	12	청년2부	윤희순(9)	1353	박희정	19	청년1부		1362	강성환	19	청년1부	
1345	송홍순	19	에버다부		1354	김윤진	19	청년1부		1363	안미숙	3	청년2부	박태순(3)
1346	염옥진	19	대학부	김근실(3)	1355	이영아	19	청년1부		1364	강화숙	19	청년2부	
1347	박소정	19	대학부		1356	이정순	2	소양부	한재순(2)					
1348	김태재	2	청년1부	안윤진(2)	1357	신윤희	19	대학부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음들

한 영혼

김 정 순(집사, 13교구)

불 신 가족 중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그 길로 바로 강릉으로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아홉과 대관령 고개에 이르러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차가 멈춰 폭락 알고서 서 버리고 말았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그리 멀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겨우 도착해서 할머니를 뵈었더니 산소 호흡기에 몸을 맡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급한 김에 “할머니 빨리 예수님 믿겠다고 시인하세요. 그러면 저속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는



머니께서 뜻밖에도 “그럼 너 나를 위해 기도해라.” 오! 주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한 영혼을 붙잡혀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라!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날 밤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할머니께서는 7년을 더 사시는 동안 입으로는 “너 기도해서 내가 바가 나왔다. 그런데도 교회에는 바가 싫어!”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썩은 뿌리고 거두지 못한 나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잘 양육하라”

8월 23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 기보리열송찬(가브리엘찬양대)
 - (찬양곡)
 -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찬 512장)
 - 주께 경배드리세 · 사랑은
- ◆ 3부예배
 - 김영애(예수찬양대)(임마누엘찬양대)
 - (찬양곡)
 - 내 왕이신 주의 찬송
 - 내 왕이신 주의 찬송 대(찬 469장)
 - 새 생명의 열매 · 해 내 사랑하나
- ◆ 4부예배
 - 발원(예수찬양대)(발원찬양대)
 - (찬양곡)
 - 나가신 복지 귀한 성(찬 222장)
 - 나가신 복지 귀한 성(찬 222장)
 - 주께 경배드리세(찬 197장)
 - 주께 경배드리세(찬 197장)
 - 주께 경배드리세(찬 197장)
- ◆ 5부예배
 - 발원(예수찬양대)(예수찬양대)
 - (찬양곡)
 - 시편 51편
 -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찬 377장)
 -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돌
 - 내 주께 경배드리세(찬 483장)

